

루터의 저작에 나타난 이습 우화 연구*

이지성 (루터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지금, 여기에서’ 루터 그리고 이습 우화
- II. 개혁의 길목, 1530년 코부르크 콜렉션에서 만난 늑대와 양
- III. 코부르크 이전 논쟁에서의 당나귀와 사자, 황소와 개구리
- IV. 코부르크 이후 탁상 담화에 나타난 이습 우화의 교육적 역할
- V. 이습 우화에서 발견하는 율법의 기능
- VI. 나가는 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읽는 ‘사자와 당나귀’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6.06>

* 본 논문은 2016년 4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루터, 십자가의 길에서 이습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으로 일부분 수정 보완되었다.

• ABSTRACT •

A Study on Aesop Fable: Focusing on Martin Luther

Lee, Jie-sung(Luther University)

Martin Luther acknowledged that Aesop's fable was secondly important after the Bible in terms of moral value. Martin Luther first used the Aesop's fable in his sermon during 1514-1517 before the Reformation day on Oct 31, 1517. It was six months for Luther to use Aesop's fables mainly in Coburg Castle during 1530. Luther had adapted the fable more than 13 pieces directly. In addition, he used Aesop's fables frequently in preaching and letters, including *Table Talk*. The last Aesop's fable were written in 1546, just before his death. For this study of Luther's Aesop's fables, the Coburg Collection, a collection of letters in 1530, is an important for the first step.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uther and Aesop's fable, focusing on the Coburg collection and its pre and post writings. Luther criticized the wealth as he personalized their negative attributes as animal-like at first. However, since the Coburg, Luther used this fable for education and sermons, as well as politically controversial tools. Luther said that "earthly lives are similar to the animal world as Aesop's Fables." The human world is not different from the world of animals. Lastly Luther tried to explore the function of the 'law' as he compared it with the 'law' by Aesop's Fables.

Key words: Martin Luther, Aesop Fable, Carl Springer, Law& Gospel, Coburg collection

I. 들어가는 말: ‘지금, 여기에서’ 루터 그리고 이솝 우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교회가 분주하다. 종교개혁의 본 고장인 독일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각 교단과 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500년전 루터가 살던 그 때나 지금이나 교회 뿐 아니라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논문은 루터가 그 시대를 향해 외쳤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그의 목소리를 다시 되새기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논문을 시작하면서 매일 거르지 않고 질문을 했다. “루터, 당신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했으렵니까?” 루터는 그 질문에 대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들려주기도 했고 루터의 장미 문장 속에서 답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답은 루터가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이야기는 방대하고 심오했지만 풀어 가는 방식은 그다지 현학적인 개념이나 어려운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금테 두른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말로 번역하는 데 온 삶을 바쳤던 루터는 자신의 신학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루터는 설교와 편지, 주석, 논문, 탐상담화를 막론하고 동물 우화를 자주 사용했다. 그의 대답을 동물 우화로 듣는 날은 루터와 마주 앉아서 그제나 이제나 음흉하기 그지 없는 늑대 같은 사람들 흉을 보기도 했고 스스로 비겁한 개구리 같았던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다. 논문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조금은 진부하고 그다지 특별하고 의미있는 작업인지 확신도 없다. 단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꾼 루터와 나눈 이야기들을 적어 보려 한다.

루터가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그가 “도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책, 이솝 우화”¹⁾의 동물들이 조연으로 등장

한다. 그 시절 루터가 겪었던 시간들을 따라 그가 동물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우선 루터와 이솝 우화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구의 가치가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²⁾ 사실 국내에서 루터와 이솝 우화의 연관성은 독일 문학의 시선으로 몇 편 정도 논문이 발표되어 있다. “마르틴 루터의 우화 연구”³⁾는 루터가 코부르크 성에서 변안한 4편의 우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늑대와 어린 양 우화에 관한 비교 연구”⁴⁾는 ‘늑대와 어린양’ 우화를 이솝과 파에드루스, 라퐁텐, 루터, 레싱의 관점에서 분석, 비교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들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다.⁵⁾ 특히 최근 독일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을 영어로 집대성한 칼 스프링거(Springer, Carl P. E.)의 *Luther's Aesop*⁶⁾은 루터가 언급한 대부분의 우

1) WA 42:373-374.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솝 우화는 WA를 토대로 이솝 우화의 원전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독일어 텍스트는 <http://gutenberg.spiegel.de/aesop>, 영어는 *Aesop's Fable*, Translated by Laura Gibbs, *Oxford World's Classic*.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온라인 버전, <http://1mythfolklore.net/aesopica/oxford/index.htm> 과 한국어로 번역된 이솝 우화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본 이솝우화』 천명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13)를 참고했다. 이솝 우화에 대한 인용은 루터의 판본을 토대로 독일어판과 영문판, 한국어판 비교하면서 가능한 루터의 의도에 맞도록 재구성 변안했다.

3) 이화영, “마르틴 루터의 우화연구” 『인문학 연구』 제97집(2014), pp. 289~306, 여기서 이화영 교수는 “루터의 우화 4편을 선정해서 당시 루터의 우화가 슈타인헤벨의 우화보다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강하며, 루터는 우화 분석을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한다.

4) 이규영, “늑대와 어린양 우화에 관한 비교 연구” 『독일어문학』 제35집(2006), pp. 113~130. 이 논문은 우화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독일 문학에서의 우화의 입지를 재조명한다. 특히 루터가 우화가 가지고 있는 “생생하게 가르치고 고발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잘 설명하며 사용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p. 124 참조.

5) 이 글은 루터와 이솝에 대해 연구한 Dithmar Reinhart의 *Martin Luthers Fabeln und Sprichwörter*, Frankfurt: Ingel, 1989, “Martin Luther als Fabelhans” *Luther 64*, 1993, pp. 67-78을 참고했다.

6) Springer, Carl P. E. (2011-10-20). *Luther's Aesop (Early Modern Studies vol. 8)*, Kirksville, Missouri: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2011, Kindle Edition, Kindle

화들을 방대한 루터 저작들 중에서 우화가 소개된 부분을 하나 하나 선별하고 본문과 대조하면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스프링거는 루터가 이습 우화를 접하게 된 배경부터 이습 우화를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점에 주목하고, 우화 편집자로서의 루터를 조명하고 루터 저작들 전체를 아울러 모든 우화들을 라틴어, 독일어와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어 루터와 이습 우화의 연구에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스프링거는 루터가 이습을 유독 많이 언급 한 것은 아니며, 인용의 빈도를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작가들 중 훨씬 더 많이 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⁷⁾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도 루터의 글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이습에 대해서는 한결같았다. 루터는 이습의 우화가 “모든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해로운 의견들보다 훨씬 바람직하며 젊은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때 성경 다음으로 이상적인 교육수단”⁸⁾이라고 칭찬한다. 루터는 이습 우화를 “‘하나님의 왼쪽 나라’ 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우화들이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끌지는 않는다.”⁹⁾고 덧붙인다.

디트마르 라인하르트는 “루터는 이습 우화를 어릴 때부터 듣고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가 굳이 라틴어 텍스트를 번역하지 않고

Locations 5390-5419 참고. 스프링거 교수는 현재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고전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초기 기독교에서의 라틴어 시들과 마르틴 루터가 사용한 서양 문학의 고전들을 연구해 왔다. 특히 고전학 차원에서 루터의 저작물 중 이습 우화를 모으고 해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미국 인문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학자이다. 스프링거의 작업은 비록 이전 독일어권에서 가졌던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루터와 이습 우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7) *Ibid.*, kindle locations 930.

8) WA TR 3:353. Springer, op cit., Kindle Locations 932. 재인용.

9) WA 42:373-374, LW 2:159.

독일어 텍스트를 사용해서 개작, 번안한 이유는 젊은 사람들과 교육받지 못한 서민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¹⁰⁾라고 보았다.

루터는 이솝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40편 이상의 우화를 자신의 글에서 사용했다. 이솝 우화가 수세기 동안 여러 언어를 통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과 등장인물이 바뀌어 왔다는 것은 루터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루터 자신도 상황에 따라 동물들의 캐릭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게 변화 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생쥐와 개구리’를 ‘생쥐와 달팽이’로 바꾸기도 하고 멧돼지는 사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루터가 우화를 어떤 유형에 맞춰 범주화 하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II. 개혁의 길목, 1530년 코부르크 컬렉션에서 만난 늑대와 양

루터가 처음으로 이솝 우화를 사용한 흔적은 1514~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 그의 설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솝 우화를 다룬 것은 코부르크성에서 머물렀던 6개월이다. 그동안 루터는 13편 이상의 우화를 직접 번안¹¹⁾하기도 했다. 또한 코부르크 성 이후에는 탁상담화를 비롯, 설교와 편지에서 자주 사용했으며 1546년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우화를 남겼다.

루터의 이솝 우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1530년 코부르크(Coburg) 성에서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남긴 편지들이 중요한 단초가 된다. 1530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때¹²⁾였다. 1517년 95개조 논제로 시작된 그의 종교개혁은 1521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홀로

10) Reinhard Dithmar, *Martin Luthers Fabeln und Sprichwörter*, op.cit., p.157.

11) 루터는 이솝 우화를 라틴어 판본이 아니라 그 당시 전해진 슈타인헤벨의 독일어 판본을 통해 접하고, 독일어를 쉽게 번안했다. Springer, ch. 2 참조.

12) 지원용, 『말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72) p. 201.

심판을 받던 흑독한 시기를 지난다. 그리고 10년 뒤,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다. 루터의 외침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 중에는 군주, 제후,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 황제 칼 5세는 이들의 세력을 무조건 꺾박하고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530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교회를 따르는 무리들과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곳이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이며 코부르크는 그 시에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지역이었다.

루터는 그 지역에서 추방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코부르크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지시하고 충고하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멜랑히톤(Philipp Melancton)에게 위임해 놓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우구스부르크의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았다.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터와 멜랑히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었다. 멜랑히톤은 어떻게 해서든 타협안을 찾아 큰 충돌 없이 이 회의가 마무리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루터는 단호했다. 특히 멜랑히톤은 교황권 자체는 승인해야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루터는 절대 교황의 지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교황과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긴박하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들이 결국 선언하게 될 신앙고백서 앞에서 자칫하면 루터와 멜랑히톤 조차 갈라설 수 있는 위기 일발의 시간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멜랑히톤은 교황에 대한 언급에서 수위를 낮추고 루터의 견해를 따랐고, 루터는 “멜랑히톤이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지나치게 평화적이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¹³⁾ 결국 루터와 멜랑히톤은 종교개혁의 신앙이 담긴 고백서를 함께 완성하기에 이른다.

13) *Ibid.*

어쩌면 이 긴박한 순간에 둘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중에 ‘이솝 우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특히 멜랑히톤에게 보낸 “나는 지금 이솝 우화를 번안하고 있다. 나는 이 우화들 전체를 모두 옮겨서 새롭게 쓰고 싶다. 하지만 내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멜랑히톤 당신이, 꼭 이 일을 마무리 지어 주기 바란다”¹⁴⁾ 라는 글을 보면, 루터가 단순히 설교의 이해를 돕는 효용성만을 위해서 이솝 우화를 다룬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루터가 이 시기에 작업한 우화 중 바이마르판에 ‘코부르크 컬렉션’으로 수집되어 있는 원고는 총 13개다¹⁵⁾. 루터는 이 우화들을 기존 이솝의 원안대로 충실하게 번안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우화들 하나 하나에 제목을 붙였고, 처음 6개의 우화에는 주제어로 인간들의 ‘바보스러움’ ‘배신’ ‘질투’ ‘유혹’ ‘폭력’ 등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제목으로 써 놓았다. 또 끝 부분에는 자신의 교훈을 실었다.

14) WA 50:432.

15) WA 50:432-460, 루터가 1530년 코부르크 성에서 남긴 글로 알려져 있는 코부르크 컬렉션은 “Etliche Fabeln aus Aesop”라는 제목으로 이솝의 우화에 대한 중요성과 13편의 우화를 직접 언급되고 있다. 루터가 직접 번역 혹은 번안한 이솝우화는 총 20개 정도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다음의 13개 정도이다. Dithmar, op.cit., pp. 25~55 참조. 디트마르는 이 책의 첫 장 “Etliche Fabeln aus Esopo D. M. L. verdeudsch (1930) 을 통해 13개의 우화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고 그 내용이 종전의 이솝 우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코부르크 컬렉션으로 분류된 이솝 우화의 제목들이다. 수탉과 진주 _ 어리석음, 바보 (Hahn und Perle _ Torheit) 늑대와 어린양 _ 미움, 증오 (Wolf Und Lamm _ Hass) 개구리와 생쥐 _ 불성실 (Frosh und Maus _ Untreue) 개와 양 _ 질투, 시기 (Hund Und Schaf _ Neid) 물에 빠진 개 _ 구두쇠, 인색함 (Hund Im Wasser _ Geiz) 사자, 황소, 연소, 양 _ 뻔뻔스러움, 오만방자함, 폭력 (Loewe, Rind, Ziege, Schaf _ Frevel, Gewalt) 사자, 여우, 당나귀 (Loewe, Fuschs, Esel) 도둑 (Dieb) Kranich und Wolf (두루미와 늑대) Hund und Huendin (개와 암캐) Esel und Loewe (당나귀와 사자) Stadtmaus und Feldmaus (도시쥐와 시골쥐) Rabe und Fuchs (까마귀와 여우)

그중 대표적인 우화는 아직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늑대와 양’이다. 루터의 ‘늑대와 양’은 기존에 이습의 우화로 전해지는 ‘늑대와 양과 조금 차이가 있다.¹⁶⁾

어린 양 한 마리가 개울가에서 갈증을 풀고 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떨어졌지만 샘 가까이에서 늑대가 역시 물을 먹고 있다. 늑대가 어린 양을 보자마자 소리친다. “너는 무슨 심사로 내가 마시려고 하는 물을 흐려 놓느냐?” 그러자 어린 양이 조심스럽게 대꾸한다.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여기 아래쪽에 있고 당신은 멀리 위쪽에 있는데요. 개울물이 당신 있는 곳에서 내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나는 단 한번도 당신에게 못된 짓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시다.” “이거 봐, 너는 지금 네 애비가 6개월 전에 하던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너도 함께 있었지. 하지만 내가 남을 비방한 대가로 네 아버지의 가족을 벗길 때 간신히 달아났지” 그러자 어린양은 벌벌 떨면서 애원한다. “아이고 늑대님, 나는 이제 태어난지 겨우 4주 밖에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를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 대신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뻔뻔한 놈 같으니, 죽느냐 사느냐 나는 네 온 종족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지. 그래서 나는 복수를 해야겠어.” 늑대는 화가 난 척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을 마친다. 주저하지 않고 늑대는 어린 양을 물어 뜯어 먹어 버렸다.¹⁷⁾ (이습 우화 원본)

늑대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나의 초원과 밭을 갈아 먹어 훼손시켰지. “어린 양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 이빨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했겠어요?” 늑대가 말했다.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수다를 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너를 잡아 먹어야겠다.” (루터가 중간에 삽입한 내용)¹⁸⁾

16) 이규영, op. cit., p. 124.

17) WA 50:449, 천병희, op.cit., p. 245.

18) *Ibid.*

양심이란 아주 대단한 악한에게서도 미동한다.

악한도 악한 행동을 할 때 양심을 달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법이다.¹⁹⁾
(이솅의 교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되어가는 형편이다. 성실하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힘은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루터의 교훈)²⁰⁾

여기서 늑대는 어린양을 만나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날조하면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다. 어린 양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지만 늑대는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결국 어린 양이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방안까지 부탁하지만, 늑대는 답은 커녕 ‘악한 것들이 감히 강자를 험담 하나는 이유로’ 어린 양을 잡아 먹는다. 결국 어린 양이 진실하고 죄가 없으며 행동도 정당하지만 힘의 논리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열하지만 강자인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솅은 여기에 늑대의 마지막 행동을 보며 한마디 거든다. 아무리 나쁜 놈들도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은 있는지 나쁜 짓에 꼭 핑계를 찾고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루터의 ‘늑대와 양’ 에는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즉 “어린 양이 초원과 들을 갈아 먹어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늑대가 어린양에게 사적인 감정 이외에 또 하나의 공적인 이유를 추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듯 보인다. 즉 앞에 이솅 원전의 늑대 보다는 이유를 만들어 가며 나름대로 합법적인 늑대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그 늑대 앞에서 어린양도 할 말은 다 하며

19) *Ibid.*

20) *Ibid.*

자신을 변호한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즉 양심적인 척 보였던 늑대는 어찌면 더욱 교활한 상대인 것이다. 루터는 ‘늑대와 어린양’이라는 제목 앞에 ‘미움’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다.

이처럼 코부르크 컬렉션에서 루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을 ‘바보’ ‘증오’ ‘불성실’ ‘질투’ ‘인색함’ ‘오만방자함’ ‘폭력’ 등으로 분류하고 특징적인 동물들을 통해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의 면면이 그제나 이제나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루터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기 위해 우화를 사용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했던 것일까? 과연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루터가 걸어 온 시간의 흐름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의 시점을 따라 그 시기에 사용한 우화 몇 편을 살펴 보면서, 그가 과연 이습의 우화를 통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가늠하고자 한다.

III. 코부르크 이전 논쟁에서의 당나귀와 사자, 황소와 개구리

루터의 삶 속에서 가장 파란 만장한 시기는 아마도 1517년과 1521년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발표한 루터의 글들이 유난히 루터의 신학의 정수로 여겨지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글들이 ‘루터의 3대 논문’으로 불린다. 이 논문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등장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그 당시 루터의 개혁을 반대하면서 루터를 모욕하고 비판하던 반대자들이었다. 루터는 3대 논문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정돈해 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 속에 루터는 이습 우화를 다양한 측면으로 인용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우화는 ‘사자와 당나귀’²¹⁾이다. 이 우화는 1521년,

21) ‘사자와 당나귀 한글판본 “사자와 당나귀가 한패가 되어 사냥을 나갔다. 야생 염소들이 사는 굴에 이르렀을 때 사자는 그 입구에 서서 야생 염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라이프치히의 염소에게(To the Goat in Leipzig)’라는 편지에 포함되어 있다. 서두의 두 단락에서 루터는 작센 주 게오르크 공작(Duke Georg of Saxony)의 비서였던 제롬 엠저(Jerome Emser)에게 함께 사냥에 나선 당나귀와 사자에 관한 우화를 들은 적이 없는지 묻는다. 당나귀의 요란한 울음소리 때문에 동물들이 날뛰자 사자는 가장 큰 먹이를 입에 덥석 물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당나귀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장해라, 나도 만일 네가 당나귀라는 걸 몰랐으면, 정말 난 아마도 널 무서워했을 거야.”²²⁾ 우화 속의 당나귀처럼 엠저는 생각보다는 그다지 무시무시한 적은 아니었다. 이성을 잃고 달려들기는 하는데 루터가 보기에는 사자 앞의 당나귀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엠저를 당나귀라고 부를 수는 없기에, 엠저 가문의 문장인 염소를 당나귀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에 대해 엠저 또한 루터를 “비텐베르크의 황소 to Bull in Wittenberg)”라고 부르며 반격을 했다.²³⁾

그러자 루터는 또 한번 “어부를 흉내 내려다 끄찍한 결과를 맞은 원숭이”를 변형시켜서 염소 엠저의 극단적인 성서 문자 해석 방법과 비현실적인 영성에 대한 답변을 한다. 루터는 어부 대신 구두 수선공을 등장시켜 “구두수선공이 가죽을 자르는 것을 본 한 원숭이가 있었는데, 구두수선공이 점포를 떠나자 흔히 하던 대로 달려 들어가 역시 자르기 시작했는데, 가죽을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다.”²⁴⁾ 루터는 계속해서 엠저가 루터를 흉내 내어 많은 저서들과 저자들을 언급하고자 했지만 구두수선공 점포의 원

당나귀는 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내물기 위해 야생 염소들 사이를 뛰어 다니며 울었다. 사자가 가장 큰 녀석을 잡았을 때 당나귀가 나오더니 자기가 용감하게 싸운 덕분에 염소들이 물려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사자에게 물었다. 사자가 말했다. 정말 이지 네가 당나귀인 줄 몰랐다면 나도 정말 겁이 났을 거야.” WA 7:262, Gibbs, op.cit., #337 참고

22) *Ibid.*

23) *Ibid.*

24) *Ibid.*

승이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비판한다. 또한 이 글에서 루터는 엠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듣다 보면 진통중인 산맥에 관한 우화가 떠 오른다고 했다.

시인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 큰 산맥은 비야흐로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었다. 모두가 산만큼 큰 아기의 탄생을 기대하는 동안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고 이에 모든 사람이 웃었다. 이 이야기는 속담으로 전해진다. 25)

루터는 자신의 신학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하는 엠저의 헛수고를 보면서, 이사야 3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여호와를 대적하려는 레바논, 바산, 갈멜 같은 세상 반대편의 헛된 노력에 대한 지적이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조그만 생쥐를 낳은 거대한 산의 이야기로 이사야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큰 산모는 마찬가지로 큰 아기를 낳을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생쥐를 보고서는 모두가 웃었다는 내용이다. 26)

루터에게 엠저 같은 그의 적수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덤벼드는 늙은 개구리일 뿐인 것이다.

커다란 동물 황소가 와서 모든 작은 개구리들을 밟아서 죽게 만들었다고 늙은 개구리에게 젊은 개구리가 불평하였다. 그러자 늙은 개구리가 화가 났고, 숨을 들여 마셔 몸을 불룩하게 만들고는 말했다:

“이제 어때? 나도 그것만하지 않니?” “아뇨,” 하고 그 젊은 개구리는 말했다. “몸이 터질 때까지 숨을 들여 마셔도 안돼요.” 27)

25) *Ibid.*, Gibbs, op.cit., #280 이 속담은 우리 나라 속담, ‘태산명동의 서일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26) *Ibid.*

27) *Ibid.*

루터는 그에 반해서 그 자신의 철저한 성경 지식이 대적들의 부풀려진 주장들을 “자신의 황소 발로” 밟을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²⁸⁾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 코부르크 성에서 작업하게 될 ‘늑대와 어린 양²⁹⁾’의 일부 내용을 언급한다. 루터는 늑대 자신이 마시는 물을 양이 흐려놓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이것을 양을 죽일 구실로 삼는 늑대를 보면서 “자신이 진실을 말한 것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할 갖은 구실을 찾고 있다”고 대적들을 늑대와 비유하면서 비난한다. 늑대 자신은 상류에 있는데도 자신의 물을 흐려놓는다고 양을 비난하고는 이를 양을 죽일 구실로 삼는 우화 속 늑대와 꼭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자신에 대한 공격들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루터 자신은 “진리가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은 보복하는 강력한 대적들에 의해 희생당하는 무해한 진실한 양이라고 말한다.

IV. 코부르크 이후 탁상 담화에 나타난 이솝 우화의 교육적 역할

1536년에 기록된 탁상담화 중에서 루터는 이솝 우화에 대한 칭찬을 이 어간다. 이솝 우화를 독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라도 우화들을 잘 구성하고 번역하기를 바랐다.

그것들은 번역해서 적절한 순서 및 범주들로 정리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편찬한 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책을 가능한 한 잘 번역하여

28) WA 7:638.

29) ch. 2 각주 17~20 참조.

올바른 순서로 정리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고대를 연상케 하는,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제 1책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고상한 것들이 제 2책으로 따로 구별되어야 하고 나머지를 제 3책으로 해야 한다. 카토(Cato)와 이습의 저작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데, 둘 다 매우 중요한 책들이기 때문이다. 카토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말과 교훈을 담고 있다. 이습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고 진지한 사실들과 사례들을 담고 있다. ... 요컨대, 내가 판단하기로는 도나투스(Donatus)가 가장 훌륭한 문법학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이후로 카토와 이습의 저작들은 가장 훌륭하고 모든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유해한 견해들보다 더 낫다.³⁰⁾

이 시기에 루터 우화는 초기의 우화를 사용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늑대와 어린양, 염소, 당나귀와 사자 가죽 등 초기에 사용한 우화들을 간혹 언급하기는 하지만 초기에 보였던 풍자나 논쟁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루터는 1519년과 1530년 사이에는 교황, 엠저나 고흐레우스(Cochlaeus) 같은 당시 자신을 공격했던 적들에게 우화의 동물들을 비유했지만 이 내용들은 그것은 코부르크 모음집(Coburg Collection)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³¹⁾

루터는 코부르크 이전에는 우화들을 힘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부정적 속성들을 동물에 빗대어 의인화 했다. 사실 우화는 가진 것 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읽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스프링거는 일단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들이 우화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반성할 만한 여지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루터도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화

30) 탁상담화에 포함된 이습 우화는 LW 54권을 토대로 WA를 비교했다. LW 54:210-12.

31) Springer, Luther's Aesop, op.cit., kl. 1848.

에 엠저나 에크, 교황을 의인화하면서 우화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그 글을 읽으며 반성할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루터의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의인화된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를 만나면 통쾌함을 얻었을 것이다.

그제나 이제나 교회나 사회 곳곳에 힘있는 사람들 즉, 루터에 따르면 ‘사자인 척 하는 당나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인다. 우화는 권력을 위해 꼼수를 쓰면서 교활하게 구는 무리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부르크 이후에 루터는 이 우화를 정치적 논쟁적 도구뿐 아니라 설교를 통해 교육적으로도 사용한다. 스프링거는 “루터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눈높이에 맞춰 문법 및 수사학 기초를 다지거나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우화의 교육적 중요성도 생각했다”³²⁾고 본다.

이 시기에 루터는 자신의 글들에서 파편적으로 우화를 적용하던 방식을 바꿔서 우화 전편을 그대로 번안해서 글 가운데 옮겨 놓았다. 만약 이 우화를 이전처럼 논쟁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다지 불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캐릭터와 사건 전개에 대략적인 소개만으로 루터의 의도는 잘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도 루터의 후기 우화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화의 내용들은 그다지 유쾌하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늑대와 두루미’³³⁾의 경우, 늑대는 두루미를 이용하고 보답은커녕 잡아 먹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고 엄포를 해대는데, 두루미는 그 힘 앞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먹고 먹히고 간교한 피로 어려움을 모면하는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32) *Ibid.*, kl. 1410~1431 참조.

33) WA 50:458.

‘힘이 정의의 경우 : 사자, 늑대, 나귀, 개’³⁴⁾에서는 함께 사냥을 하고 그 몫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늑대가 정당하게 4등분을 해서 자신의 몫을 먹자, 화가 난 사자는 늑대 가죽을 벗겨 버린다. 그 모습을 본 나귀가 자신의 몫을 포함해 나머지 모두를 사자에게 가져다 바친다. 사자가 흡족해서 묻는다. 누가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었는지. 당나귀는 가죽이 벗겨진 늑대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늑대보다 한 수 위인 사자가 등장한다. 어리석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던 늑대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대신 나귀는 약삭빠르게 위험을 모면한다. 그런데 이 우화 끝에 루터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안했다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어찌 생각하면 조금 터무니 없는 교훈으로 들린다. 보통은 사자의 잘못된 욕심을 탓하거나 늑대의 경거망동을 닮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훈이겠지만, “루터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없더라도 조심하라”고 말한다. 늑대와 어린 양의 “정실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교훈과 교묘하게 연관되는 내용이 보인다.

어쩌면 그 교훈의 방점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다 그렇다”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 언제나 고통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도 여우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음흉한 늑대도 사자 앞에서는 먹이 한줌 밖에 안되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은 고난 받으며 꾸역꾸역 적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루터가 이습 우화를 통해 하고자 한 이야기 일까?

스프링거나 카이저 (Wolfgang Kayser) 와 같은 독일 문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루터가 이습 우화를 통해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⁵⁾ 특히 그는 우화가 율법처럼 개인, 사회에서 죄가 넘쳐나는 것을

34) WA 50:442.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어리석음과 악의적인 행동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화는 율법처럼 자신의 불완전함을 돌아보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우화가 갖는 기능은 이렇듯 교훈과 교육인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스프링거가 생각하는 율법은 루터의 율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인다. 루터의 율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루터가 생각한 율법의 기능은 결국 철저히 복음 안에서 가능했다. 스프링거의 해석을 루터가 주장한 율법의 기능에 비추어 좀더 보완한다면, 루터의 이습 우화의 의미가 풍성해 질 것으로 보인다.

V. 이습 우화에서 발견하는 율법의 기능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에게 율법과 복음의 가치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³⁶⁾이었다. 또한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에 대해 1531년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런 사람이라면 신학자의 자격이 된다”³⁷⁾고 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왜곡과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덧붙인다.³⁸⁾

루터 연구자인 월터 (C. F. W. Walther)는 루터가 지적한 율법과 복음에 구분에 대한 오해를 다섯가지로 간추려서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5) Springer, op.cit., kl. 2156 ff, Karl August Ott 의 견해는 이규영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p. 124 참조.

36) WA 40:670.

37) WA 36:9-26.

38) WA 40-1:528.

▲복음은 신적인 가르침이고 율법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다. 아니다. 복음과 율법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필요하고 율법은 불필요하다. 아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이 없이는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율법은 구약의 가르침이고 복음은 신약의 가르침이다. 아니다. 복음은 구약에 있을 수 있고, 신약에 율법이 있을 수도 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 율법은 저주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아니다. 율법과 복음의 목적은 둘다 인간 구원에 있다. ▲ 율법과 복음의 교리는 상호 모순된다. 아니다. 성경 안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³⁹⁾

이러한 월터의 지적을 통해 루터가 말한 “율법의 완전체라고 생각하는 십계명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도 구원의 복음과 인간의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볼 수 있다”⁴⁰⁾ 는 의미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루터는 율법의 기능을 구분한다.⁴¹⁾ 율법은 우선 정치적 역할을 통해 외적인 질서가 세상 속에 유지되고 평화와 법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첫 번째 율법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양심을 지도하는 것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39) C. F. W. Walther, *Law and Gospel*, 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81, p. 14.

40) 베른하르트 로제, 『말틴루터의 신학』 정병식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2) p. 374.

41) 루터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1531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러한 기능에 대한 구분은 반 율법주의자들을 언급 하면서 단 한번 정도 등장한다. 이를 미루어, 루터에게 율법을 구분하는 작업은 멜랑히톤이 율법의 제3의 기능을 말하면서, 도식화되면서 공식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은 전체적으로 1516년, 1519년, 1531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1516년의 갈라디아 주석은 분실되었고 1519년, 1531년 주석만이 남아있다. 이 시간 동안 루터의 신학도 보완되면서 점차 정립되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주석에 나타난 사소한 차이 때문에 루터의 생각이 오해를 빚고는 한다. 로제나 알트하우스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루터 신학의 근본적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로제 op.cit., pp. 378~379.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치적 기능’⁴²⁾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세운 정부의 관리, 부모, 교사 혹은 법조인이 수행하게 된다.⁴³⁾

하지만 루터에게 율법의 본래 과제는 신학적 기능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극복하게 해 주는 율법의 기능’⁴⁴⁾이라고도 부른다. 율법의 신학적 기능은 인간을 절망하게 하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끔 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진지하게 따르며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만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제 1계명조차 버리게 되는 것이다. 루터는 이럴 때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⁴⁵⁾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래 죄와 연약함을 알게 된다면 차원은 달라진다.

여기서 율법의 제 3의 기능이 등장한다. 로제는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루터의 1522년 설교와 1538년 반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루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멜랑히톤의 주장이 보완된 내용이라고 본다.⁴⁶⁾ 여기서 율법은 ‘고소하는 기능’을 하는데, 의롭다고 인정 받은

42) *primus usus legis, usu politicus, usus civilis*

43) WA I, 459, 루터는 “율법이 이런 정치적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이며 칭찬 할 만하다”고 말한다. 로제 *op.cit.*, p. 376 재인용

44) *Ibid.*, *usus theologicus*

45) WA 39, I 559,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라고 명령한다. 만일 인간 자신이 이러한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을 안다면, 그는 절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로제 *op.cit.*, p. 380 재인용.

46) *Ibid.*, p. 385.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율법의 3번째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하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⁴⁷⁾ 이라는 말이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교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로제는 이 경우 율법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본다. 이 율법은 심판하는 기능이 아니라 훈계 혹은 교육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⁴⁸⁾

중요한 것은 루터 자신도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길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루터는 계명으로서 경고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고지로서 율법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루터교 신앙 고백서는 율법의 기능을 1) 죄를 억제하는 것 2) 원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구분한다.

마이에르는 〈루터교 신학〉 중에서 “슈말칼트 신조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일차 신조는 제3의 기능을 말하는데 율법의 제 3의 기능이란 기독교인이 주로 기독교인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대해 그 자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율법의 제3의 기능이 필요하다”⁴⁹⁾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인들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야생마같은 옛 아담의 피임과 위협 뿐 아니라 고뇌와 징벌의 무서운 매로 선을 행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죽음으로 죄의 몸을 벗어 버리고 영광된 부활을 할 때 까지 기독교인은 율법의 요구와 위협과 징벌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율법의 제 3용법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이, 율법의 주된 용법이고, 그것은 여전히 옛 아담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선포라고 본다.

47) *usus legalis als lex sub conditione solutis und usus evangelicus*

48) 로제, *op.cit.*, p. 378.

49) 메일(F. C. Mayer) 지원용 옮김, 『루터교 신학』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 108.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설교되어야 한다. 이 둘은 함께 하기는 하지만 하늘과 땅처럼 떨어져 있다.⁵⁰⁾ 율법은 “만일 구원받고자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서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루터교 신앙고백에서는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된다.

손규태 박사는 “루터에 있어서 율법의 제 3 용법”이라는 글에서 현대 신학자들 간에 루터가 율법의 제3용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면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마치 옷감의 날줄과 씨줄의 관계와 비견할 수 있다”면서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등, 자연과 은총, 행위와 존재, 의인과 성화, 교회의 제도 등 어려운 개념들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서 이해될 수 있으며 모든 기독교적 제목들을 해결할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는 실마리이다”⁵¹⁾라고 말한다.

루터 자신이 율법의 제3의 기능을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언제나 강조했던 점이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하지만 그 둘을 함께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루터의 이습 우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스프링거가 지적한 것처럼, 또한 루터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습 우화의 역할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어서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도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즉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평화와 법적인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즉 ‘극복하게 해 주는 율법의 기능’도 찾아 볼

50) *Ibid.*

51) 손규태, “루터에 있어서 율법의 제3용법” 『성공회대학논총』 제5집(1991), p. 50.

수 있을 것 같다. 루터가 첫 번째 기능, 즉 도덕적 교훈으로 세상을 계도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여타 동화들처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을 찾아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루터의 이습 우화에는 언제나 어리석고 악의적인 행동들이 처벌을 받거나 착한 동물들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인간들은 이러한 세상이 모두 그렇거나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습 우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모두어 안고 거기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신학적 기능'은 인간을 절망하게 하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결국 루터는 이습 우화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의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굳이 이습 우화 두고 율법의 제3의 기능까지 언급하면서 루터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는 작업이 어찌 보면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루터가 이습 우화를 '하나님의 왼쪽 나라' 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루터 자신도 이습 우화가 율법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즉 우화가 복음에 다가가기 위한 율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루터가 남긴 많은 글 들 속에서 이습 우화는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 보게 한다. 특히 루터가 남긴 가장 긴 우화 '사자와 당나귀'⁵²⁾는, 루터의 우화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캐릭터들

52) WA 26:537, 이 우화는 전해지는 이습 우화의 판본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우화가 실려 있는 WA 26의 이 내용은 1564년 발견된 루터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우화에 대해 루터가 언급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우화는 루터, 당신이 쓴 것 아닌지" 궁금해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스프링거는 이 우화를 '루터의 우화'로 분류하고 있다. Springer, op.cit., kl. 3897.

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루터의 의도에 조금 가까이 다가서 보려고 한다.

VI. 나가는 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읽는 ‘사자와 당나귀’

루터가 다루었던 이솝의 많은 우화들처럼 이 우화의 결말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경솔한 행동, 경거망동 때문에 벌어지는 심각한 사례들이 보인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사자와 당나귀 사이에 벌어진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당나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승자가 말과 힘 또는 다른 능력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경쟁에서도 결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고비이겠지만 사자를 상대로 당나귀가 멋진 한판을 할 것이라고 믿고 응원했다. 결국 당나귀가 왕이 되었다” 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보면 “사자를 상대로 약자인 당나귀가 이겼구나. 멋진 승리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내용 전부를 꼼꼼하게 훑어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다음은 스프링거가 번역한 “사자와 당나귀 Luther’s Fable of the Lion and the Ass”의 내용이다.

“동물 나라의 왕인 늙은 사자가 병이 들었다. 사자는 모든 동물들을 불러 자신이 죽기 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왕위를 젊은 사자에게 넘겨 주기로 결정했다. 동물들은 늙은 사자와 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늙은 사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평소 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물들도 일단 왕에 걸맞게 웅장하게 장례를 치렀다. 사실 동물들 중에는 늙은 사자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했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19:14) 사자의 왕국은 조금씩 무너지고 동물들은 그 소리에 환호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그때까지 사자의 왕국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수근거렸다. 대부분 사람들도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나쁜 것들만 기억하고 떠들어 대곤 한다.

왕국에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른 무리의 동물들은 그래도 젊은 사자가 왕으로 지목되었으니까 젊은 사자의 왕권을 인정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들은 투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언제나 그렇듯 잘못을 일삼고 성실하지 않은 의회는 여우를 임시 왕국의 대변인으로 뽑았다. 그들은 여우에게 당나귀가 왕이 되도록 하라고 시켰다. 여우가 생각하기에도 당나귀가 왕이 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여우는 아무래도 사자 보다는 당나귀 아래에서 살아야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의회의 음모에 동참했다.

여우가 동물들 앞에 서서 지금 왕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사자 왕이 잘못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고 사자 가문을 욕하는 내용이었다. 모여든 동물들도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들이 힘들게 사는 게 모두 사자와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는 사자가 나쁜 놈이었다고 외치는 동물들도 나타났다. 그래도 여전히 왕의 선출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당나귀 가문을 소개했다. 당나귀는 참을성 있고 겸손합니다. 동물을 먹지도 않고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당나귀가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나귀는 남들의 재산을 빼앗지도 명예를 가지려고 부당한 행위를 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여우는 동물들이 술렁거리자 결정타를 날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 당나귀가 등에 새겨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나귀에게 왕의 역할을 준비하신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여우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동물들은 당나귀를 환호했다. 그들은 드디어 세상의 왕일 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나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잘 들을 수 있을거야. 목소리가 좋아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송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구구절절 칭찬을 늘어 놓았다.” 당나귀는 왕뿐 아니라 교황으로까지 추앙될 판이었다. 이 모든 칭송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당나귀 등 뒤의 빛나는 십자가 덕분이었다. 당나귀는 동물의 왕이 되었다.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여의고 성을 빼앗긴 젊은 사자는 빈털터리로 왕국에서 쫓겨나던 날, 늙은 사자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정치적 동료들이 젊은 사자가 불쌍했지만 여우와 의회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늙은 사자 곁에서 오랫동안 상담자 역할을 해 주었던 늙은 개가 동물들 앞에 나섰다. 늙은 개는 동물들을 향해 말했다. “당나귀를 왕으로 선출한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쯤꺼린다고 모두 금은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 그는 당나귀가 등에 아름다운 십자가를 새기고 있지만 그가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을 위해 당나귀가 과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동요했다. 결국 젊은 사자와 당나귀를 경쟁을 시켜서 왕을 결정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경연은 냇물 건너기였다. 물에 발이 젖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었다. 사자는 단번에 냇물을 건넜다. 여우와 당나귀는 자신이 없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나귀의 냇물을 건너다 물에 빠졌다. 젖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작은 물고기가 지나다가 당나귀 귀에다 자국을 새겼다. 이 좋은 징조를 그냥 넘어갈 여우가 아니었다. 여우는 동물들을 향해 이것 또한 하나의 징조라고 또 하나의 기적을 보라고 소리쳤다. 기적을 핑계로 이겨보려 했지만 사자와 늙은 개가 인정하지 않았고, 동물들도 뭔가 석연치 않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연을 하기로 했다. 숲으로 가서 가장 빠른 동물을 잡아 오기로 했다. 게으른 당나귀는 슬슬 지치지 시작했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군. 나는 아무래도 좀 쉬어야겠다. 당나귀는 토끼를 잡지는 않고 나무 그늘에서 혀를 내밀고 잠자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혀를 쪼아 먹으려 했다. 당나귀는 잠결에 까마귀를 깨물어 버렸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토끼를 잡아 가져오던 젊은 사자가 보게 되었다. 사자는 순간 당나귀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일을 했는지 두려움이 들었다. 어쨌거나 두 번째 경연에서도 확연하게 승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세 번째 경연에 들어간다.

산 꼭대기에 있는 맷돌을 먼저 가져오기로 했다. 열심히 달려가던 사자는 자꾸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미 앞의 두 경연에서 혼신의 힘을 쏟았기 때문

이다. 사자가 멧돌 앞에 도착했을 때, 멧돌은 이미 당나귀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별로 한 것 없던 당나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려 올라가서 멧돌을 갖게 된 것이다. 사자는 결국 당나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당나귀는 계속해서 왕이 되어 동물 나라를 다스렸다.”⁵³⁾

우화를 읽는 동안 사람들은 젊은 사자가 왕위를 되찾기를 응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말은 안타깝게도 당나귀와 여우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라는 생똥맞지만 낫익은 소품이 등장한다. 간교한 여우의 잔꾀로 당나귀 등에 새겨져 있는 단순한 무늬는 십자가라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결국 백성들과 사자조차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피엔딩은 아닌 듯 하고 웬지 십자가를 앞세운 이 결말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이 사자와 당나귀 우화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 특히 율법의 용법의 틀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자와 당나귀’에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당나귀의 십자가에 속아서 사자 왕을 버린 동물들을 향하고 있다. 루터가 살던 당시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돌아 보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진실된 소리를 듣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능은 당나귀의 십자가에 잠시라도 현혹되었던 젊은 사자에게 필요하다. 젊은 사자는 어쩌면 최선을 다한 승부에서 패자가 되었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왕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우화는 당나귀가 왕이 된 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아마 젊은 사자는 그리고 이 우

53) *Ibid.*, kl. 3841~3884.

화를 읽는 사람들은 젊은 사자가 가짜 십자가에 속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자포자기한 채 당나귀가 무슨 짓을 하던 여우가 왕국을 어떻게 망가트리던 외면하고 사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율법의 신학적 기능, 즉 극복하게 하는 기능은 이 우화를 읽고 있는 젊은 사자들에게 잠시 현혹되었거나, 망설였거나 외면했던 일들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앞에서, 루터의 우화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젊은 사자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다. 만약 이 우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사자는 어떻게 등장할까? 자포자기한 젊은 사자는 오갈데 없이 평생을 힘겹게 살거나 복수의 칼을 갈고 여우와 당나귀를 물리치고 동물의 왕국을 피로 물들이며 다시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젊은 사자의 삶 속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고 반성을 통해 왕의 자리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한가지의 경우의 수를 추가하게 한다. 젊은 사자가 여우나 의회의 배신을 겪지 않았다면 어떤 왕이 되었을까? 어쩌면 동물들의 불만처럼 아버지 사자를 닮아 무섭고 포악한 왕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배신과 고통을 겪으면서 젊은 사자는 왕이라는 자리에 대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가짜 십자가에 자신이 현혹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고통당했고 어리석었던 그 시간과 왕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루터는 이 우화를 통해 결국 젊은 사자와 동물들이 헛된 십자가의 망상에서 깨어나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진 복음에 다가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복음은 합격과 복권 당첨 소식에 가리워져 있다.

이습이 살던 시대나 루터가 그 우화를 옮겨 심던 상황이나 지금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잘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만사 그만이라고 여기며 폭군 사자 아래서 무위도식 하는 동물들이나 그런 백성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게으르면서 욕심만 가득한 당나귀들.

이런 세상에서 백성들이 힘을 합쳐 여우나 당나귀 한 마리 해치운들, 어린 양 한마리가 똑똑하게 머리를 써 늑대를 능지처참 시킨다고 한들 그 세상에 평화는 올까? 해가 바뀌면 개와 당나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어린 양은 어느새 늑대의 자리에 올라 멍청한 개 앞에서 사자 흉내를 낼 텐데 말이다.

루터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죄인으로 낙인 받는 세상, 결국 착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세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이 다 그렇다” 라고 말했다. 루터는 핏박을 일삼는 늑대와 허구 현날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이 날 때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린 양이었던 사람들이 내일 늑대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선언을 통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시며,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만 늑대와 어린 양의 고리로 얽히고 설켜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진면목임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 화려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곳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여전히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불편하고 듣기 힘든 이야기들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이며, 가기 싫고 머물기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다.

하우어워즈는 *Community of Character* 첫 머리에서 이 책을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쓴 마음으로 10개의 논제를 제시하며 부연하기 위해 『워터십 다운 Watership Down』의 토끼 이야기를 꺼낸다.⁵⁴⁾ 그는 토끼와 인간들의 이야기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토끼들이 한결같이 기억해 낸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내러티브’가 있다고 한다. 하우어워즈는 내러티브를 통해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즉 바로고 정당한 사회는 자기만의 끊임없는 유혹과 싸우고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⁵⁵⁾ ‘워터십 다운’ 토끼들을 통해 하우어워즈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전함, 즉 영광을 선택하는 순간, 그 ‘내러티브’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하우어워즈는 토끼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루터는 이속 우화의 동물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온통 세상이 다 ‘영광’을 따라 질주하고 있는 마당에 진정 가치 있는 무엇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가 겪었던 십자가 내러티브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 아닐까. 슬픔의 시대를 건너며 세상의 빛을 찾아 동굴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54) 스탠리 하우어워즈, 『교회됨』 문시영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10) p. 34,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Indiana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p. 15

55) S. Hauerwas, *Truthfulness and tragedy*, Notre Dame and London : University of Notre Dame, 1977, p. 74

때다. 영광의 빛에 가려져 눈 앞의 다른 것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이다.

루터가 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향해 말을 건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나귀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뿐이라고.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가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루터가 500년 전 우리에게 준 종교 개혁의 십자가 신학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어찌 보면 루터의 이습 우화 속에서 늘 약자였던 동물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과 대면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결국 이 참된 십자가를 위해 루터는 평생을 살았고 이습 우화는 그 길고 험했던 그 여정 중에 등장한 아주 작은 소품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쉽고 가깝게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루터 저작물

Weimar Ausgabe, D. Martin Luthers Werke, kirtische Gesamtausgabe, Weimar:Boehlau, 1883ff.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edited by Jaroslav Pelican and Helmut T. Lehmann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ff.

『신앙고백서』 지원용 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이솝 우화

<http://gutenberg.spiegel.de/aesop>

Aesop's Fable, Translated by Laura Gibbs, Oxford World's Clas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온라인 버전, <http://1mythfolklore.net/aesopica/oxford/index.htm>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분 이솝우화』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13.

Dithmar Reinhart, *Martin Luthers Fabeln und Sprichwörter*, Frankfurt: Ingel, 1989. "Martin Luther als Fabelhans" *Luther* 64, 1993.

Lohse, Bernhart, *Martin Luther's Theology: it's Histor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trans. by Roy A. Harrisville. Minneapolis: Fpntress Press, 1999.

Springer, Carl P. E. (2011-10-20), *Luther's Aesop (Early Modern Studies vol. 8)*, Kirksvill, Missouri: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2011, Kindle Edition.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Indiana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S. Hauerwas, *Truthfulness and tragedy*, Notre Dame and London : University of Notre Dame, 1977.

메얼(F. C. Mayer) 지원용 옮김, 『루터교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5.

베른하르트 로제, 정병식 옮김, 『말틴루터의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2.

스탠리 하우어워즈, 『교회됨』 문시영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10.

박일영, “한국교회 갱신의 과제와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 『루터연구』 제12호 (1997), 23-39.

손규태, “루터에 있어서 율법의 제3용법”, 『성공회대학논총』 제5호(1991), 7-52.

이규영, “늑대와 어린양 우화에 관한 비교 연구”, 『독일어문학』 제35집(2006), 113-130.

이화영, “마르틴 루터의 우화연구”, 『인문학연구』 제97집(2014), 289-306.

지원용, 『말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72.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국 문 초 록 •

루터는 이습 우화를 “도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루터가 처음으로 이습 우화를 사용한 흔적은 1514~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 그의 설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습 우화를 다룬 것은 코부르크성에서 머물렀던 6개월이다. 그동안 루터는 13편 이상의 우화를 직접 번안했다. 또한 코부르크 성 이후에는 탁상담화를 비롯, 설교와 편지에서 자주 사용했으며 1546년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우화를 남겼다. 우선 루터의 이습 우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1530년 코부르크(Coburg) 성에서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남긴 편지들 모음인 ‘코부르크 콜렉션’이 중요한 단초가 된다. 본 논문은 코부르크 콜렉션과 그 이전과 이후의 이습 우화를 언급한 글들을 중심으로 루터와 이습 우화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구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는 코부르크 이전에는 우화들을 힘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부정적 속성들을 동물에 빗대어 의인화 했다. 하지만 코부르크 이후에 루터는 이습 우화를 정치적 논쟁적 도구뿐 아니라 설교를 통해 교육적으로도 사용한다. 루터는 이습 우화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다 그렇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언제나 고통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도 여우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음흉한 늑대도 사자 앞에서는 먹이 한줌 밖에 안 되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은 고난 받으며 꾸역꾸역 적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루터가 이습 우화를 통해 하고자 한 이야기이다. 본 논문은 이 지점에서 루터가 이습 우화를 통해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제어: 마르틴 루터, 이습 우화, 칼 스프링거, 율법과 복음, 코부르크 콜렉션
